

사진에 이야기를 담고 싶을 때 주로 취하는 방법이 연출사진이다. 자연이나 어떤 피사체에 대한 한 컷의 이미지가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순간이나 상황에 대한 느낌이거나 대상에 대한 단편적 정보 정도에서 그치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많은 작가로서는 스토리의 맥락을 압축하는 연출된 사진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파야는 할 이야기가 많은 작가다. 그리고 아마 그 넘쳐나는 상상력이 주체가 안돼 아마도 스틸컷에만 머무르기 어려울 작가가 될 지도 모르겠다. 그의 『Fantasy』 시리즈는 자신의 옛날 사진을 보면서 과거에 대한 흐릿한 기억과 사실에 집착하는 대신 사진에 고착된 과거의 어느 장면을 시작점 삼아 자신의 상상력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면서 기억의 결핍을 보상한다. 옛날 사진 위에 색색의 유토를 붙여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시키면서 파야의 작품은 과거의 고정된 어느 시점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넘어간 것이 된다. 그리고 파야는 이 '놀이'를 즐긴다. 잃어버린 기억 대신 자리한 새로운 상상적 현실은 그에게는 무한한 놀이터이며 보는 우리에게겐 즐거운 재향유가 된다.

이에 대한 다른 변주가 그의 『Comedy & Enigma』 시리즈가 되겠다. 이 시리즈에서 보여 지는 상황은 현실에서는 좀처럼 벌어지기 어려운 코메디 같은 사건이며 여기 덧붙여진 것은 그가 낸 수수께끼이다.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답이 안 나오는 질문, 거기다 답이 안 되는 답안들까지 모두 파야의 상상력이 낳은 '농간'이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아주 탐닉한다. '엉뚱한 사진을 만드는 나도 풀고, 보는 너도 풀고'식이다. 그러니 답이 존재할 수 없다. 출제자도 모르는 답을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하지만 답을 떠나, 이 시리즈의 사진들은 프레임에 제약 받지 않는다. 사진의 피사체들은 프레임 밖을 튀어나가 있기 일쑤고 상황도 프레임 안에 갇혀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은 파야의 이미지와 문제를 매개로 촉발되며 파야가 시작한 상상적 장면에 우리의 상상을 끌라쥬 하기가 쉬워져 감상자의 수용적 입장은 어느새 적극적 개입으로 변화하게 된다. 어머니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 시작한 『Mother Fashion』시리즈는 진행형의 시리즈로 그 끝을 아직 알 수 없다. 어머니의 꿈과 욕망의 실현이라는 그의 소박한 동기는 지금 이 땅의 어머니의 꿈과 욕망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의 기로에 서있기도 하다. 그래서 파야의 『Mother Fashion』은 패션지의 화보 같은 '웰메이드'사진도 아니고 어머니 세대에 가해진 억압과 욕망에 대한 사유가 녹아있는 사진도 아닌 어중간한, 혹은 나이브한 위치에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작품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상상력' 자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파야의 상상력은 사회적 기반에서 연유 되었다기보다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태도에서 연유된 측면이 더욱 크다. 하여 그의 작품은 현실을 교정하거나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간다고 보다는 그로 인한 상황을 상상력을 통해 향유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파야의 태도는 보수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분명 파야만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상'이라는 것은 현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파야의 작품에서 현실은 허구가 아니라 그가 경험한 구구절절한 현실이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되어 우회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전에 그가 돈이 절실히 필요해서 동생과 벌인 도시락 판매사업이 이틀 만에 망해 그에게 산더미처럼 쌓인 빈 종이 도시락 통만 남았을 때, 그 도시락 통에 가한 파야의 『아르바이트 실패 프로젝트』로 충분히 증명되며, 정작 작가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의 상상력이 가진 건강한 성격 또한 삶에 대한 그의 긍정적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